

자치역량 제고·재정건전성 확보 경쟁력 강화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안행부·지방4대협의체, '자치 헌장' 선포

안전행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지방자치 헌장'을 선포했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헌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장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강화,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는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하여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부활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29일을 기념해 정례화한 것으로 지방자치제 부활 22주년을 맞아 이번에 정해졌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는 각 지방이 각자의 특성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정부가 해나갈 지원은 책임지고 해나가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주민 아닌 국민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

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9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28~30일 사흘간 aT센터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

고 있다. 박람회는 지방자치 발전취지와 발전전략을 소개한 '지방자치 정책홍보관', 지자체별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할 '시·도 홍보관', 영랑 굴비·임실 치즈·홍성 한우 등 지역의 우수 특산품과 향토명품을 소개하고 할인판매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신이며, 한 무신론자가 당신께 기도도 올립니다. 소슬한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고은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처럼, 누군가에게 애절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는 계절입니다.

무신론자인 나도 김현승의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처럼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박목월의 '이별'처럼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혼자 울고 싶어집니다"

신이며, 당신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땅의 어린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천황의 침략군대의 위안부 노릇을 하게 한 일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잡아떼고 감추는 아베 측속들의 무엄하고 뻔뻔한 짓을 왜 모르는 체하십니까.

나그 족속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많은 방울벌레 목을 놓아 울어도

절대로 우리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를 한 바 있는 전 총리의 말을 뒤집어엎고, 위안부들을 강제로 동원한 바 없다고 억지를 부리자 오히려 그 나라 안에서 인기가 드높아졌습니다. 지금 독도를 우리에게 빼앗으려 하는 것은 영토 침탈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이며, 일제가 이 땅을 36년 동안 강점하고 약탈과 착취를 일삼은 그것이 우리 한반도를 근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친일파들이 이 땅 안에 있습니다.

친일파 역사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 후세들을 교육하는 역사교과서를 저술하고 있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5·16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민주 인사를 탄압했다고, 유신시대를 미화합니다.

신이며, 만일 당신에게 권능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 붉힐 줄 모르

한 무신론자의 가을 기도

긴긴 밤 다함없이 흐르는 눈물이며, '한 많은 별레소리 풀밭을 다 덮어도 내리신 이슬인가 거룩하신 임의 은혜.'

그들의 옛 시(詩) 하이쿠를 읽어보면 아름다움과 애절한 정서가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 그들의 잔혹함의 인자는 대관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 족속 중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았는데, 그는 내가 충고를 하거나,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하이, 하이' 하면서 무릎을 꿇고 굽실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고향을 주는 고소한 차 한 잔, 목은 김치 한 접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은 줄줄 흘러내려 진정으로 향기와 맛을 찬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단 단체를 구성하고 나면 잔혹해지고 철면피가 됩니다.

그들의 섬나라를 우리 선인들은 왜국(倭國)이라고 불렀는데, '왜'라는 글자는 난장기를 뜻하고, 난장기는 왜소(矮小)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은 체구가 왜소할 뿐 아니라 대인답지 못하고 이기적인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 않을까요.

독일의 한 총리는 유대인들에게, 독가스로 사람들을 죽인 감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는데, 일본 총리 아베는

고, 침 튀기며 막말을 하고,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자들의 입과 손바닥에 가시가 돋아나게 하소서.

의원의 수가 과반을 넘었음을 기회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말고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고 오만해지고, 공안 정국을 만들고, 백성들과 한 약속을 골격 삼켜버리고, 으스스대고 군림하는 자들을 참회하게 하소서.

신이며, 노자는 '곡신(谷神)은 그득한 암컷이고 그 암컷의 문은 우주의 뿌리(자궁)라고 말했다고, 한 생명주의자는 여성을 묘연(妙衍)이라고 했습니다. 묘연은 그득한 오묘함이 무성한 여인의 몸과 영혼을 말합니다. 곡신과 묘연은 모성성(母性性)과 여성성(女性性)이 융합된 최고의 그득하고 자비로운 우주적인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염의 부드러운 융화세상을 창조 생산하는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성 대통령의 출현을 바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이며, 깊이 살피소서, 곡신과 묘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체가 그를 물러싸고 있는 수상한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이 땅을 화염의 부드러운 융화세상이 아닌 쪽으로 밀고가고 있습니다.

<소설가>

“학생들이여! 꿈·끼·도전정신 가져라”

최문기장관, 광주서 '토크콘서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 장관은 29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다목적홀에서 대학생, 일반인이 참가한 가운데 '美人(미래인재) 토크콘서트'를 열어 '창의적 융합 인재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과 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최 장관의 의지를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창업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박대규 학생, 인사사회 기초교육학부 김성호 교수, 도에가이 자 인스나인 디자인연구소장인 황인욱 대표, 창조경제타운 멘토로 활약 중인 박은호 센터미디어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광주지역 대학생과 일반인 2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시대에는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공천할 것”

천호선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

“차 정부 불법선거 은폐 급급”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을 은폐하려 한다면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전국 순회연설회”를 위해 이날 광주를 방문한 천 대표는 광주시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여당 후보를 도왔던 것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경질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국정원 문제는 단지 과거 정권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과 불공정을 근절하지 못하면 국정원과 군은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개



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80년 5월 광주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유신의 후예, 독재의 후예들에 의해 다시는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뒤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와 광산구 월곡시장과 광산구 신가동, 수완지구 등지에서 정당연설회를 가졌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스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중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 5억3천
- 신창동 전(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 세하동 답(자연녹지) 5,500㎡ 매 6억6천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 9천5백만

기타

- 광산구 본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액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지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니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비싼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주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몰탈등)
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 017-602-1948